

정용봉 전 광주시 기획실장 도서 기증



정용봉 전 광주시 기획관리실장이 도서 500여권을 광주시의회 기증했다.

2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이날 광주시 등에서 30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구입한 전문서적과 교양서적 500여권을 광주시의회에 기증했다.

정 전 실장의 기증 도서는 의회사무처장으로 6년간 근무하면서 구입한 의회 운영 관련 전문서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중 외국의 지방의회 운영사례와 선진 지방자치 사례 등 절판된 서적들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은 1998년부터 6년 동안 광주시의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했으며 광주시 기획관리실장을 끝으로 2005년 10월 정년보다 3년 일찍 명예퇴직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자랑스러운 부고인상' 시상



조대부고 총동창회(회장 신우식)는 조정환(8회), 류재운(15회), 조대우(16회)씨 등을 '자랑스러운 부고인상'으로 선정, 21일 열린 '부고인의 밤'에 시상했다.

전 조선대 이공대 학장을 역임한 조정환씨는 14대 조대부고 총동창회장을 맡는 등 동문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광주시 의사회 류재운 부회장과 대림요업(주) 조대우 대표이사도 모교를 빛낸 동문에 선정됐다. 총동창회는 '부고인의 날' 행사에 앞서 이날 조대부고 운동장에서 총동문 체육대회를 가졌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향토문화 발전 기여 위황량 선생 문화훈장



평범한 산에 지나지 않았던 장흥 천관산을 전국적인 문화·관광명소로 재탄생시킨 덕분에 위황량(86) 선생이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정부로부터 문화훈장을 받았다.

장흥군 관사는 옥당리에서 태어나 자라면 서 일찍부터 천관산의 아름다움에 눈을 뜯은 선생은 옛 문현에 나타난 천관산의 명수 270여 곳을 직접 답사, '사진으로 본 천관산'이라는 제목의 도록 3천 부를 사재를 털어 출간했다. 또 천관산 정상 연대봉에 퀘털 직전의 상태로 방치되어있던 봉수대를 완전 복원해냈으며, 약수터 시설과 등산로 개설·정비, 안내표지 시설을 설치하는데도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제30회 일고인 한마당' 행사



광주서중·일고 총동창회(회장 강삼복)는 21일 광주시 동구 누문동 광주일고 운동장에서 '제30회 일고인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예가 조기정(32회), 의료인 김윤일(35회)씨가 '2007 자랑스런 일고인상'상을 받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청국장에 묵은지 넣으면 별미예요”

광주 김치축제 대상 심경희 씨

“맛있는 김치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질 좋은 배추·젓갈·고춧가루를 고르는 것입니다.”

2007 광주김치축제 '전국전통김치 담그기 경연대회'(3명 1팀)에서 대상을 받은 (주)오색식

'청국장 배추김치'로 영예

풀 심경희(여·54·광주시 북구 풍향동) 대표는 “30여 년 전 시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대로 집에서 담가 먹던 김치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고 웃었다.

심씨가 이끈 팀은 21일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광주 비엔날레 제1전시관에서 열린 경연대회에서 ‘청국(장)배추김치’를 만들어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의 영예를 거머쥐었다.

심씨는 ‘청국장’ 가루로 김치를 만들면 어쩔까?라고 생각한 것을 실전으로 응용해 대회에 참가했다. 항균효과가 뛰어난 꿀백나무에 ‘청국 배추김치’를 담아 2개월간 실외에서 숙성시킨 것이다.

“청국장에 오래묵은 김치를 넣으면 청국장 특유의 냄새를 없앤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김치 만들기에 써봤더니 옛 어른들의 말처럼

냄새도 없애고 맛도 일품이었습니다.”

심씨에게 ‘손맛’을 물려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1960년대부터 간장·된장·고추장 등을 만들던 광주 ‘범표간장’의 운영자. 심씨는 지난해

“시어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담가”

12월 남편의 뒤를 이어 (주)오색식품 대표로 취임했다.

심씨는 “강원도에서 최상급의 배추를 가져오고, 젓갈은 집에서 직접 담그는 등 열정을 쏟고 있다”며 “대대로 물려온 전통을 토대로 새로운 맛을 개발하는 등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유해첨가물 덩어리' 과자, 정신질환 부른다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저자 안병수씨

“16년 동안 과자를 직접 먹어보면서 남은 것은 망가져 있는 내 몸뿐이었습니다.”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의 저자 안병수(51·후텔식품건강연구소 소장)씨는 지난 19일 광주YWCA 초청 강연회에서 “식품첨가물이나 정제당(Refined Sugar) 등의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지 않게끔 위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선 범국민운동을 통해 전국민이 나서서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지난 84년부터 2000년까지 16년간 D제과회사에서 과자개발 기술자로 재직했었다. 새로운 과자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루에 70g의 과자를 4개 이상 먹으면서 일했던 안 소장은 갈수록 무기력감과 현기증·만성피로로 인해 과로워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과자의 위험성을 확인 후 건강을 위해 회사를 그만뒀다. 이후 자신이 직접 음식을 해 먹으며 과자 등 인스턴트 음식의 유해성에 대해 알리기 위해 강연과 연구에 열중하고 있다.

안 소장은 “우리들이 흔히 먹는 과자나 인스턴트 음식은 화학물질 등 식품첨가물의 남용, 트랜스 지방 등 나쁜 지방 사용, 정제당 및 수입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어 매우 유해하다”고 설명한 뒤 “특히 저항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절친질환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먹지 못하게 막을 수 있을까?

“학교 달릴 때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과자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만이라도 과자나 음료수 등 인스턴트 음식을 먹이지 않는다면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 부모들로부터 위험성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안 소장은 “설탕 등의 정체당 대신 조청이나 유기농 설탕을 쓰고, 단맛의 조청이나 유기농 설탕을 쓰고, 단맛의



음식을 먹고 싶으면 과일을 먹으면서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며 “이런 경고에 반짝 반응하지 말고 굳은 결심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체질개선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전남대 박상철 교수

경영학회 최우수논문상



전남대학교 박상철(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가 최근 개최된 국제경영관리학회 2007년도 주제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박 교수는 국제경영학회 학회지인 국제경영학회를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국지방신문협회 편집국장단 회의



광주일보를 비롯, 9개 지역 대표 신문들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 편집국장단이 지난 19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17대 대선 후보 보통토론회와 대선 관련 기사의 상호 교류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왼쪽부터 강종규(부산일보), 양해석(제주일보), 박진오(광주일보), 이영동(경남신문), 신수용(대전일보), 김종남(경인일보), 신향락(광주일보), 정택수(매일신문), 최동성(전북일보) 편집국장.

(전북일보 제공)

광주공고 총동창회 한마음 체육대회



광주공고 총동창회(회장 김규봉)는 21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 광주공고 운동장에서 '제32차 총동창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박형규(1회·전남대 명예교수)씨가 '자랑스런 광주공고인 영예대상'을 수상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조선대·전남대 총동창회 골프대회



조선대 총동창회와 전남대 총동창회는 21일 무인컨트리클럽에서 '제1회 조선대·전남대 총동창회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사전 원쪽부터 이원구 조선대 총동창회장, 김주훈 조선대 총장, 강정채 전남대 총장, 김국웅 전남대 총동창회장.

(조선대 총동창회 제공)

포스코, 농촌일손 돋기 봉사활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2천200여명의 직원들은 지난 20일 광양·순천 등 지역농기를 찾아 농산물 수확, 농기구 운행, 농사의 집 고쳐주기 등 '나눔의 토요일' 봉사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광양제철소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0-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족

▲주영찬(담양 부군수)씨 차남 청원군 고하선씨 차녀 수진양=27일 (토) 오전 11시 45분 오후라하우스 3층 그랜드 특실.

▲홍석태(전남도청 복구지원과)씨 차남 영훈(롯데 코리아 세븐) 군 김영석(영광전산업 대표이사)씨 장녀 선주양=27일(토) 낮 12시 에벌루션웨딩컨벤션 3층 컨벤션홀.

▲송명기(용산전력 대표)씨 장남 화종군 정찬길씨 장녀 혜진양=28일(일) 오후 1시 10분 프라도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

▲신태균(영암 문화원장)씨 장남 재현군 천시욱씨 딸 주희양=28일(일) 오전 11시 예술의전당 2층 국번 없이 1331.

▲임채준(전 한일정형외과원장)씨 차남 중철(남부대 교수)군 주순

▲김희만(광주시 서구청 경제과장)씨 장남 대현군 최인철씨 장녀 송혜영=28일(일) 오후 12시 40분 화이트하우스예식장 2층 사파이어룸.

▲고기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홀티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

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227-8877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652-1366, 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

9191, 광주 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송정초교 제 22회 동창회(회장 박옥희) 모임=28일(일) 오전 10시 담당남초교 강당. 011-9091-0316

▲창원황씨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장 황양선) 강원도 철원 세장산 향사봉(시기)=24일(수) 오전 9시 광천동 터미널. 232-6400

향우회

▲재광 해남군 향우기족 체육대회=28일(일) 오전 9시 광주월드컵

보조 경기장. 011-627-2015

▲광주·전남 ROTC 제 16차 정기총회 회장 이·취임식=26일(금) 오후 7시 금남로 5가 교보빌딩 10층 리더스 클럽. 529-2944

▲담양 청평초교 제 62회 동창회(회장 김승준) 모임=27일(토) 오후 7시 문흥동 한솔회관. 011-625-5656

▲담양 님초교 제 27회 동창회(회장 박옥희) 모임=28일(일) 오전 10시 담당남초교 강당. 011-9091-0316

▲광주시복지귀사시설 정신장애인 주간 프로그램 이용회원 모집=정신 장애인들에게 조속한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돋기 위한 프로그램 이용회원 모집. 무료, 정신의료기관에서 현재 약물 치료 중인 만 18세 이상 정신장애인. 문의 262-4379

▲천도교 광주교구 시일식 봉행